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시대를 말하는 명화들
- 회화를 바꾼 22명의 천재들 -

(『時代を語る名画たち-絵画を変えた22人の天才-』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日 科

孔 惠 楨

2021年 8月

시대를 말하는 명화들

- 회화를 바꾼 22명의 천재들 -

(『時代を語る名画たち-絵画を変えた22人の天才-』 翻譯論文)

지도교수 반노 신지

공 혜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7월

공혜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년 7월

역자서문

미술사학은 다가가기 쉬운 학문이 아니다. 미술사학자는 양식부터 시작해 도상학(圖像學), 역사적 배경, 작품의 예술적 가치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한다. 관심은 있지만 미술사학에 관한 지식을 쌓기에는 관련 서적 내용이 대체로 어려워 손대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학부 때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미술사학의 문턱을 조금 낮추어 보다 많은 이들이 다가가기 쉬운 서적을 고르고 또 골랐다. 이 책의 저자 기무라 다이치(木村泰司)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미술사를 전공하였고 영국 런던의 소더비 인스티튜트에서 WORKS OF ART 과정을 수료했다. 서양미술을 간단하고 재밌게 가르쳐 미술 팬을 많이 만들었다.

개론서보다는 재밌지만 깊이 있는 내용도 다루는 본서를 교토의 한 서점에서 찾아냈다. 학술적인 내용도 담겨있으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골랐다. 이 책은 서양미술사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기독교와 귀족 문화에 대한 설명도 있고 전문용어가 비교적 적다. 미술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

본서는 예술가의 일생을 요약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면서 미술사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옥같은 작품만을 제시하고 있다. 14세기에 태어난 안 반 에이크부터 근대를 살아간 세잔까지 한 시대를 대표한 화가들에 대해 총 22장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그 시대를 말하고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을 설명하며, 그 시대를 담은 작품을 소개한다. 즉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사학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작품을 읽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미술사학이 대중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표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배워온 동기들, 마지막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항상 곁에서 위로해준 가족에게 감사를 표한다.

공혜정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시대의 명화를 그린 유명 화가를 소개한 『시대를 말하는 명화들 - 회화를 바꾼 22명의 천재들-』의 Artist 01~08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화가의 일생뿐 아니라 화가의 표현 양식과 화가들 사이의 연관성,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Artist 01에 등장하는 15세기 플랑드르파의 대표적인 화가인 얀 반 에이크는 유화 기법을 최초로 사용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젠트 제단화』라는 제단화를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Artist 02에는 전성기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가장 나이가 많고, 파리 루브르미술관의 소장품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생을 간략히 요약했다.

Artist 03에 등장하는 화가는 라파엘로다. 그 역시 전성기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서양 회화의 고전으로 불린다.

Artist 04는 독일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여겨지는 뒤러다. 그 당시 없었던 ‘예술가’로서의 화가란 개념을 독일에 도입한 인물이다.

Artist 05는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카라바조다. 그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 많은 추종자를 낳았으나 그와 반대되는 극적인 삶을 산 이단아이기도 하다.

Artist 06은 ‘왕의 화가이자 화가의 왕’이라고 칭송받는 루벤스가 등장한다. 그는 화가로서는 이례적인 명문가 출신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사용해 외교관으로 활약하고 왕에게 기사 칭호도 부여받는 등 영광스러운 삶을 산 성공한 인물이다.

Artist 07에 등장하는 화가는 루벤스가 ‘가장 훌륭한 조수’라고 칭한 안토니 반 다이크다. 예술가 불모지였던 영국 화단에 영향을 끼친 화가로 초상화가 특기였다고 한다.

Artist 08에는 프랑스 회화의 규범이 된 푸생이 나온다. 그는 감각보다 지성을 자극하는 이지적 양식을 완성했다.

일러두기

- 주석은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명, 지명, 전문용어 위주로 달았다.
- 인명의 외래어 표기는 『세계미술용어사전』,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랐다.

목 차

역자서문

국문초록

Artist 01. 1432년 『젠티 제단화』가 완성된 순간이 유화가 탄생한 순간
서양미술사상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얀 반 에이크(1390-1441) 8

Artist 02. 당시 최고의 걸작으로 여겨진 『최고의 만찬』과 경이롭고 기적으로
여겨지는 표현이었던 『모나리자』
전성기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14

Artist 03.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예술 양식을 융합해 절대적
고전이 된 라파엘로의 기법
압도적 존재로서 미(美)의 역사에 군림한 라파엘로 산치오(1483-1520) 18

Artist 04. 여러 장의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화가 뒤러는 독일에 ‘예술가’란
개념을 도입했다
독일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 22

Artist 05. 많은 화가에게 충격을 안겨주어 로마에서 유명해진 『성 마태오
3부작』
17세기 서양회화의 혁신을 불러온 바로크 회화의 혁명가인 카라바조(1571-1610)
..... 27

Artist 06.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크 회화를 상징하는 거장은 ‘루벤스 공방’에서
대제단화와 역사화를 연달아 제작했다

‘왕의 화가이자 화가의 왕’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 32

Artist 07. 예술가의 불모지 영국에서 확립된 은근한 우아함을 풍기는 ‘영국풍’
초상화

루벤스가 ‘가장 훌륭한 조수’라고 칭한 안토니 반 다이크(1599-1641) 39

Artist 08. 그림을 ‘읽는’ 시대에 프랑스 회화의 규범이 되는 이지적 양식은
푸생이 완성했다

17세기 후반 이후 프랑스 회화의 예술 이론을 만들어낸 니콜라 푸생(1594-1665)

..... 43

Artist 01. 1432년 『겐트 제단화』가 완성된 순간이 유화가 탄생한 순간

- 서양미술사상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얀 반 에이크
(1390-1441)

‘북유럽 르네상스’란 용어는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화 운동인 르네상스와 달리 15-16세기에 이탈리아 북부, 즉 알프스 북쪽 지역에서 발전한 미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유럽 르네상스는 저지대 국가(Low Countries, 현재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일대), 알브레히트 뒤러가 활동했던 독일, 그리고 풍텐블로프¹⁾ 등 궁정 문화를 배경으로 기존의 미술과는 다른 양식이 전개된 프랑스 등 지역별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으면 전체상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저지대 국가 중에서도 남부 플랑드르 지역(현재의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남서부에서부터 프랑스 북부 끝까지를 포함한 지역)은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저지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북유럽 르네상스 회화를 대표하는 뛰어난 화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잉글랜드 왕국에서 수입한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물 산업과 유럽 각지와 무역업 등으로 번영한 플랑드르 지역은 12세기경부터 발전했습니다. 부유해진 도시 주민들은 영주인 플랑드르 백작의 대대적인 자치를 허락했고, 이로 인해 몇 개의 특권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이 도시들이 플랑드르파²⁾가 발전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15세기에 플랑드르파는 유화 기법에 따라 사실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유화 기법의 질을 높이고 완성했다고 여겨지는 화가가 바로 얀 반 에이크(1390-1441)입니다.

1) 역주. 16세기 프랑스 풍텐블로 성과 관련된 양식. 2차례로 나뉘며 1차는 1528~1558년 30여 년에 걸쳐 작업이 전개됐고 그중 가장 유명한 화가는 피오렌티노와 프리마티치오였다. 제2차 풍텐블로파는 종교전쟁(1562~1598) 이후, 앙리 4세의 후원으로 작업한 작가들이며 뒤부아, 뒤브레이으, 프레미네를 중심으로 한 플랑드르 미술가들이 이에 포함된다.

2) 역주.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특히 플랑드르의 브뤼헤, 겐트 같은 도시에서 활동한 예술가들과 작품을 의미한다.

그는 15세기 플랑드르파의 거장일 뿐만 아니라 북유럽 르네상스의 상징적인 존재이며, 서양미술사에서 최고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서는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서명과 연도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선구자는 바로 얀 반 에이크였습니다.

그가 활동한 플랑드르 지역은 당시 북유럽에서 가장 번성한 부르고뉴 공국의 일부였습니다. 얀 반 에이크는 화려한 궁정 문화를 자랑하고 기사도 문화를 드높인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3세³⁾(선량공, 재위 1419-1467)의 수행원 겸 궁정화가였습니다. 시종은 군주의 신변을 돌보기 때문에 군주와 가까운 심복이 맡았습니다. 얀 반 에이크는 선량공의 혼담을 위한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상대 왕녀의 ‘맞선 사진’이 아닌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궁정화가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이처럼 유복한 시민의 주문을 받는 것이 허락된 점을 보아도 선량공이 얀 반 에이크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량공은 1441년에 얀 반 에이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망인 마르가리타에게 거액의 부의금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 리비나가 1450년 젊은 나이로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도 염려했을 정도입니다.

선량공이 통치하던 시절 브뤼헤는 현대의 뉴욕처럼 번영한 국제 상업 도시였습니다. 선량공도 왕자령(appanage, 프랑스 왕이 왕자 또는 형제에게 지급한 영토)에 해당하는 부르고뉴 지역보다 플랑드르 지역을 선호했고, 브뤼헤와 브뤼셀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플랑드르 지역은 최첨단 궁정 문화가 꽃피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플랑드르의 회화 문화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플랑드르의 화가들이 궁정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지역의 성직자나 부유층의 주문도 받았고, 시장 광장 등에서도 그림을 판매하는 회화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5세기 들어 예술 활동의 중심이 궁정인들이 선호하던 채색 사본에서 패널화로 옮겨갑니다.

15세기 서양회화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회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3) 역주. 중세 프랑스 동부의 공국인 부르고뉴 공국을 통치한 공작이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의 부르고뉴는 최고로 번영했고 선진 예술의 중심지였다. 얀 반 에이크를 포함한 플랑드르 예술가들의 후원자였다.

만, 사실은 플랑드르 회화가 르네상스 회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 반 에이크도 거주했던 브뤼헤는 현재 뉴욕과 같은 국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브뤼헤처럼 상업이 발달했던 피렌체나 베네치아 등 여러 도시와의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생산품인 모직물뿐 아니라 회화도 이탈리아로 수출됐습니다.

안 반 에이크는 제단화나 성모자상과 같은 종교화뿐만 아니라 초상화 중에서도 걸작을 여러 점 남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초상화를 측면으로 그렸습니다만, 어두운 배경에 비스듬히 포즈를 취하는 4분의 3 정면상이라는 플랑드르파 특유의 양식을 정착시킨 것도 안 반 에이크입니다. 유화 기법과 4분의 3 정면상, 그리고 안 반 에이크의 특기였던 풍경 묘사도 이탈리아 회화의 특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시대 국가 초상화의 특징이 나타난 작품 『(붉은) 터번을 쓴 남자의 초상』에는 액자에 라틴어로 안 반 에이크가 1433년 10월 21일에 완성했다고 적혀있어 오랜 시간 동안 자화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화상설을 굳히는 하나의 요소였지만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안 반 에이크의 대표작은 역시 이 시대에 있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다폭 제단화 『젠트 제단화』일 것입니다. 제단화에는 형 휘베르트 반 에이크(-1426)가 제작을 시작했으나 미완성인 채로 세상을 떠나, 동생인 안 반 에이크가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단화에 있어서 안 반 에이크와는 다른 조형성을 볼 수 없고, 휘베르트작이라고 명확히 판명된 작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432년 5월 6일 이 『젠트 제단화』가 완성됐을 때 비로소 유화가 탄생했다고 해도 좋을 순간이었습니다. 일요일과 국경일에 공개됐던 이 제단화는 유화 기법에 의한 진품이라고 착각할 만큼 세밀 묘사로 기독교의 종교 원리를 표현했습니다. 날개를 단 앵무새 때 바깥 패널의 하단 부분 좌우에 주문자인 요도쿠스 베이트와 그의 부인 엘리사베트 보르뤼트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이 제단화 자체가 그들 부부와 조상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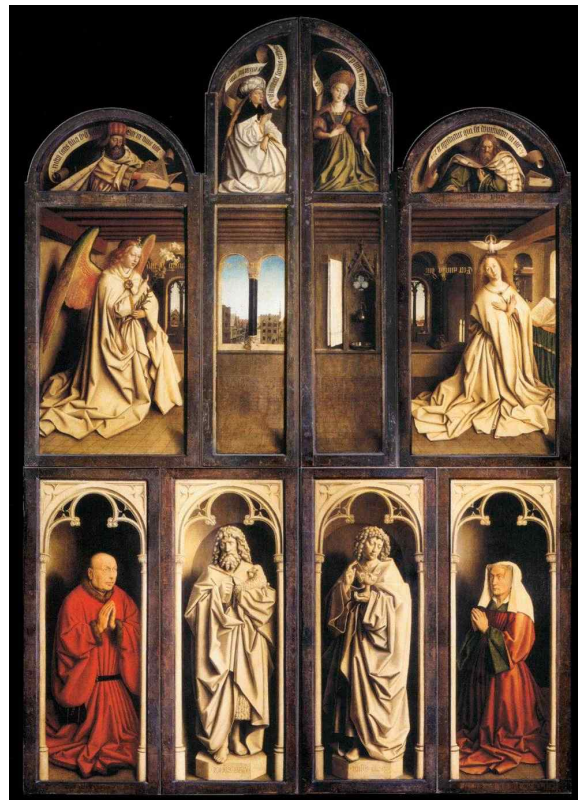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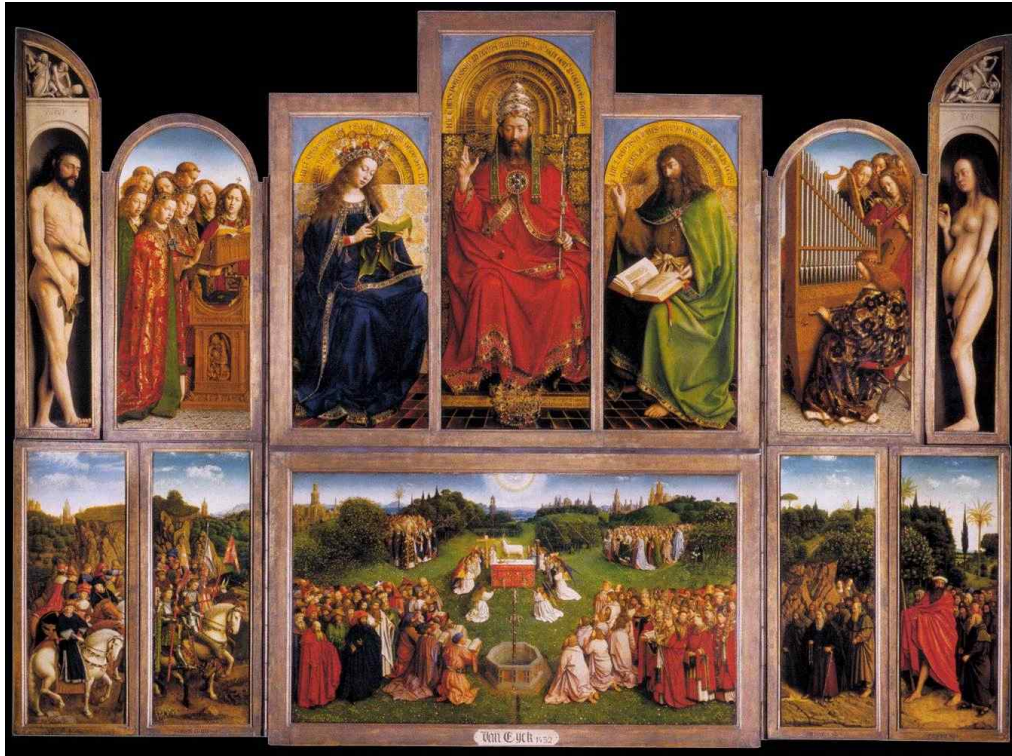
『젠트 제단화』 이후 안 반 에이크는 또 하나의 대표작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비롯해 서명과 제작 연도를 새긴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 부부를 그린 이 초상화는 시민계층을 전신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매우 드문

초상화인데, 이 시대의 플랑드르 회화답게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배경인 벽에는 “얀 반 에이크 여기에 있었다. 1434년”이라고 쓰여 있고, 이는 얀 반 에이크가 결혼의 증인으로서 쓴 것이며 동시에 작품 서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재위 1621-1665)의 궁에서 일했던 시절, 이 작품은 마드리드 왕궁에 걸려 있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시녀들』에 국왕 부부가 그려진 거울 트릭은 얀 반 에이크의 이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붉은) 터번을 쓴 남자의 초상』, 1433년, 26 × 19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겐트 제단화』, 1432년, 높이 375 × 폭 520 cm (날개를 열었을 때)
260cm (날개를 닫았을 때), 벨기에 헨트 성 바보 대성당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1434년, 82.2 × 60 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Artist 02. 당시 최고의 걸작으로 여겨진 『최고의 만찬』과
경이롭고 기적으로 여겨지는 표현이었던 『모나리자』

- 전성기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1519)

미술사에는 ‘전성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며, 르네상스 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미켈란젤로(1475-1564), 그리고 서양회화의 고전(규범)인 라파엘로(1483-1520)가 활약한 시대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다빈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미술사에서는 레오나르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루벤스(1577-1640)처럼 성으로 부르거나 엘 그레코(1541-1614)처럼 통칭으로 부르고 미술사에서 이름으로 부르는 화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3대 거장들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3대 거장이 활약한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를 일반적으로 1495년부터 1520년(혹은 1527년)까지로 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최후의 만찬』의 제작이 1495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520년 라파엘로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1527년 로마가 약탈당해 로마와 교황청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거쳐 매너리즘이란 새로운 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는 끝이 납니다.

1452년 4월 15일 레오나르도는 토스카나 지방⁴⁾의 빈치 마을의 공증인과 농부의 딸 사이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같은 마을의 직공과 결혼합니다. 당시에 사생아는 드물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았습다. 게다가 세 번째 의붓어머니가 이복동생을 낳을 때는 이미 24세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레오나르도는 외아들로 귀하게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역주. 토스카나주(Regione Toscana). 중부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으며, 주도는 피렌체이다. 자연 환경, 역사, 예술적 유산, 고급 문화에 대한 영향력으로 유명하다. 이탈리아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힌다.

그러나 당시 피렌체 공화국에서는 사생아였던 레오나르도가 아버지의 직업인 공증인을 잇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1435-1488) 공방에 들어가 기초 수업을 받습니다. 그는 이 공방에서 선배인 산드로 보티첼리(1444/45-1510)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1472년 20세 때 피렌체 화가 조합에 등록하여 화가로서 자립합니다.

다만 레오나르도가 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곳은 피렌체가 아닌 1482년경 이주한 밀라노였습니다. 후에 밀라노 공작이 되는 루도비코 스포르차5)(통칭 일모로, 재위 기간 1494-1499) 밑에서 일한 시기를 제1 밀라노 시대라고 하며, 1500년 밀라노 공국이 프랑스군의 침략을 받아 일모로가 붙잡히게 될 때까지 밀라노에 머뭅니다.

제1 밀라노 시대에 제작한 것이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의 도미니코 수도원 식당에 있는 벽화 『최후의 만찬』입니다. 당시 수도원 식당에는 『최후의 만찬』을 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는 사도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각각의 사도가 동요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등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의 동요’를 ‘신체의 동작’으로 나타냈고,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 인문주의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1404-1472)의 『회화론』에서 설명한 역사화6)가 써야 하는 구성과 표현을 실행에 옮겼고 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벽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연도를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당시부터 최고 걸작이라 여겨졌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극적인 심리 표현과 지금은 손상되어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실적인 묘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뒤에 광배(성인의 뒤에 비치는 후광)가 있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예수를 포함하여 모두 광배가 없

5) 역주. 1452-1508. 밀라노의 공작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의 후원자였다. 무어인과 닳은 검은 얼굴빛과 검은 머리 때문에 일모로(il Moro, 무어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6) 역주. 物語畫(istoria): 정영복(1997)에 따르면 서구 회화에서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역사화’라는 용어는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의 “이스토리아”(istoria)를 그 기원으로 한다. “이스토리아”를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고 대신에 예수 뒤에 있는 창문에 햇빛이 비쳐 혁신적이란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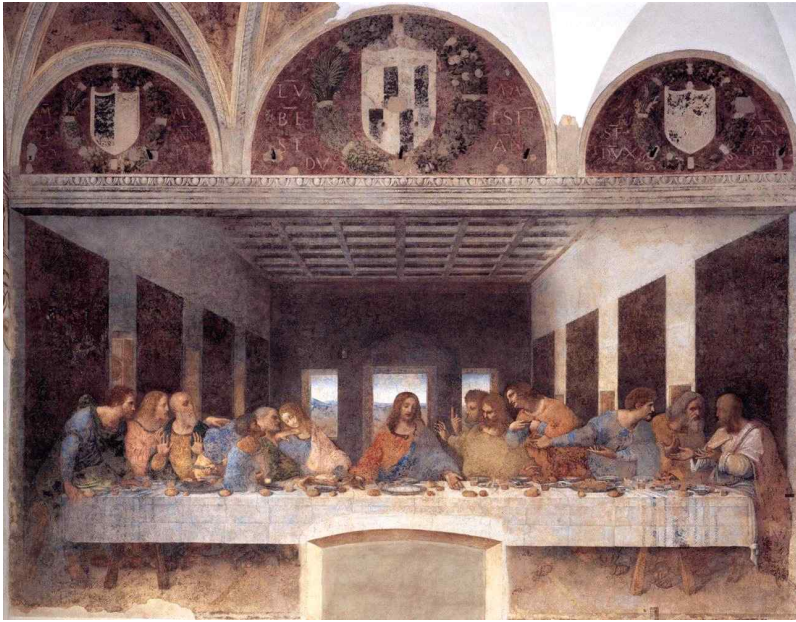
1500년 밀라노에서 이 벽화를 본 프랑스 왕 루이 12세(재위 기간 1498-1515)는 손상을 입더라도 이 작품을 벽에서 떼어 내어 프랑스로 가져갈 수 없는지 물어 보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화작품 『모나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렌체의 직물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리사 게라르디니)의 초상화로 여겨지며,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사 델 조콘도의 초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듯이 『모나리자』는 『라 조콘다』나 『라 조콘도』라고도 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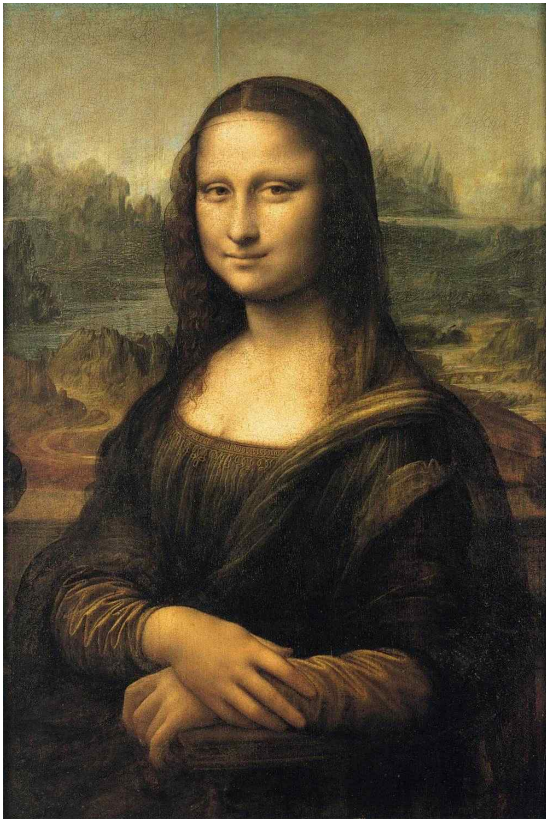
얇은 베일이 머리를 덮고 있는데 이는 당시 기혼 여성의 상징이었으며 여성의 매력 중 하나인 아름다운 머리를 숨기면 정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초상화의 아름다움이 칭송받는 이유는 신비로운 모델의 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옅은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라데이션을 사용했고 이는 ‘스푸마토(연기와 같은)’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즉 스푸마토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곽선 없는 묘사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상화가 유화라는 사실과 배경에 있는 풍경 묘사를 고려하면 15세기 플랑드르파의 전통이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탈리아의 회화에까지 완전하게 정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초상화의 전통이었던 프로필(측면상)이 아닌 네덜란드 회화에서 유래한 4분의 3 정면상을 취한 것을 보면, 북방 르네상스가 15세기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1495-1498년, 462 × 879 cm (템페라, 벽화)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모나리자(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사 델 조콘도의 초상)』
1503-1506년경, 파리 루브르미술관

Artist 03.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예술 양식을 융합해 절대적 고전이 된 라파엘로의 기법

- 압도적 존재로서 미(美)의 역사에 군림한 라파엘로 산치오 (1483-1520)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예술이 절정을 맞이한 시기는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지만, 그 기간을 1495년부터 1520년 또는 1527년까지로 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3대 거장 중 한 명이며 가장 연장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제작을 1495년에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끝은 라파엘로가 서거한 1520년 혹은 로마 약탈이 일어난 1527년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3대 거장 중에서 가장 젊은 라파엘로의 회화 양식은 16세기 말 바로크부터 19세기 신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서양회화의 절대적인 고전(규범)으로 계속 군림했습니다.

레오나르도보다 31살이나 젊고 미켈란젤로보다 8살 어린 라파엘로 산치오 (1483-1520)는 이탈리아 중부 우르비노에서 궁정화가인 조반니 산티(1435경-1494)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반니가 우르비노 공작 페데리코 3세(재위 기간 1474-1482)와 구이도 말도(재위 기간 1482-1508) 밑에서 일한 궁정인이었기 때문에 라파엘로 자신도 궁정화가에 걸맞는 소양을 쌓게 됩니다. 사교성이 좋고 뛰어난 성품을 가진 라파엘로였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 후원자였던 율리우스 2세⁷⁾(재위 기간 1503-1513)와 르네상스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메디치 가문 출신이며 로렌초 데 메디치의 차남인 레오 10세(재위 기간 1513-1521), 이 두 로마 교황의 총애를 2대에 걸쳐 받고 후원을 받았습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된 라파엘로는 베로키오 공방에서 레오나르도의 동

7) 역주. 율리오 2세로도 불린다. 1443-1513. ‘무서운 교황’ 또는 ‘전사 교황’이라는 별명이 있다. 활발한 전쟁 활동으로 정치가다운 인상이지만, 그는 예술과 문화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다. 재임 시기가 전성기 르네상스와 정확히 일치하며,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 역시 그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료이기도 했던 피에트로 페루지노(1445/1450경-1523)의 공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조반니가 죽기 전부터 페루지노 밑에서 수업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루지노 밑에서 라파엘로는 스승의 우아하고 조화로운 작품을 흡수합니다. 페루지노도 우르비노 공작이 매우 높이 평가한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1504년에는 피렌체로 이주하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연기와 같은) 기법과 삼각 피라미드형 구도, 미켈란젤로의 인물상 포즈 등 두 작가의 작품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파엘로는 『모나리자』의 구도도 초상화 몇 점에 적용했습니다.

또 피렌체 거주 시절 라파엘로는 ‘성모의 화가’로서 지위를 확립합니다. 20페이지의 『검은 방울새의 성모』도 라파엘로가 친구인 상인을 위해 피렌체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인물상의 삼각형 구도는 레오나르도의 영향을, 그리고 서정적인 풍경 묘사는 페루지노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세례자 요한이 데려온 검은 방울새를 어린 예수가 쓰다듬고 있습니다. 골고타 언덕으로 가는 도중 예수의 이마에 꽃혀 있던 가시 면류관의 가시를 새가 내려와 뽑았을 때, 예수의 피 한 방울이 닿아 빨간 반점이 생겼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은 방울새는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의 수난을 암시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전통적으로 예수보다 조금 나이가 많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갈대의 가늘고 긴 줄기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동물의 모피를 몸에 두르고 가죽 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으므로 세례자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용 잔도 가죽 띠에 달려 있고 이는 이후 예수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어린 라파엘로가 선배 두 명을 제치고 서양회화의 규범이 된 이유는 그가 두 명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고, 선배들의 예술 양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신의 회화를 크게 발전시켜 라파엘로 특유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회화 양식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라파엘로의 자화상으로 여겨지는 이 작품은 처음에 피렌체에 체재했을 때나 체재 후 우르비노로 일단 돌아갔을 때 그렸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약 2년 후 1508년 말이 되자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로마로 향합니다.

예의 바르고 온화한 라파엘로는 교황을 비롯해 고위 성직자들과도 가까이 지

였습니다. 궁정인으로서의 뛰어난 사교성을 알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율리우스 2세를 위해 바티칸 궁전 서명의 방에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작품은 고대의 철학자와 과학자의 모델로 레오나르도와 라파엘로를 추천한 같은 고향 출신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1444-1514), 그리고 8살 연상의 라이벌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했습니다. 라파엘로 자신도 벽화의 오른쪽 끝에 베레모를 쓴 인상 좋은 젊은이로 그려 넣었습니다.

로마에서 라파엘로는 화가뿐만 아니라 건축가로도 활약합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제단화로 유명하지만 라파엘로도 예배당을 위해 태피스트리 연작을 디자인했습니다.

또 라파엘로는 공방에 많은 제자를 두었고, 3대 거장 중 선배 2명과 달리 많은 회화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 자신의 회화나 스케치는 판화로 제작되어 생전부터 그 명성은 프랑스까지 전해졌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라파엘로의 작품을 복제했기에 유럽 전역에 라파엘로의 아름다운 양식이 전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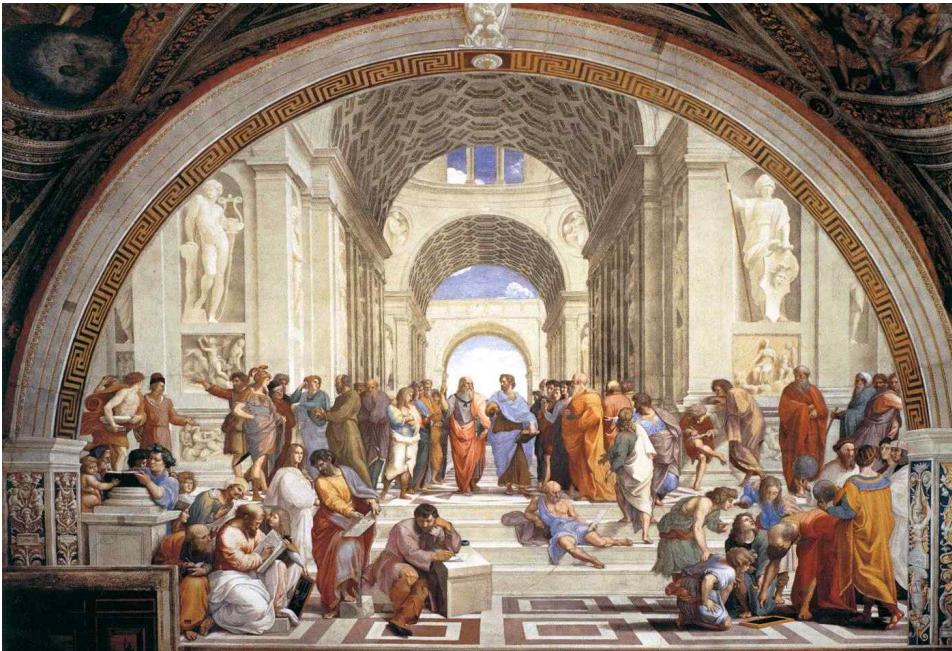
이리하여 37세 생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라파엘로는 영원한 도시 로마에서 화려한 활약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회화의 고전으로서 압도적인 존재로 미의 역사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자화상』, 1506년경,
47.5 × 33 cm,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검은 방울새의 성모』, 1505-1506년, 107 × 77 cm,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아테네 학당』, 1509-1510년, 바티칸 미술관

Artist 04. 여러 장의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화가 뒤러는 독일에 ‘예술가’란 개념을 도입했다

- 독일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러 (1471-1528)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는 독일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여겨진다.

뒤러는 1471년 헝가리계 금 세공사의 차남으로 뉘른베르크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다른 장인의 자식들처럼 처음에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한 후, 그 지방의 목판화가 밑에서 3년간 도제⁹⁾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금 세공사가 화가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여겼습니다.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류계급과도 가까운 관계였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라는 뒤러의 직업 선택은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었다고 뒤러 자신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업은 그의 남동생이 금세공의 장인이 되어 뒤러를 잇습니다.

그 후 바젤과 스트라스부르 등에서 수업을 마친 후 1494년 뉘른베르크로 돌아와 유복한 상인의 딸 아그네스 프라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년간 이탈리아로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1494년 가을에 떠나 다음 해 봄까지 주로 베네치아에서 지낸 뒤러는 그곳에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 양식을 흡수했습니다.

물론 이 여행 이전에도 뒤러는 판화를 통해 이탈리아 미술을 접했습니다. 판화는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워 유통하기가 쉬웠습니다. 그 후 뒤러 자신의 명성도 유럽 각지에 널리 알려진 것은 유화 작가로서가 아니라 그의 판화 작품이 유럽에 유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 역주. 바이에른 주에 위치해 있으며, 주에서는 뮌헨에 이어 2번째로 큰 도시다. 중세에 설립된 도시로, 프랑켄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9) 역주. 상인과 장인의 직업 교육 제도다. 도제는 고용주와 계약한 기간 지속적인 노동에 종사하며 대가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도제, 직인, 장인의 3단계로 나뉘며 도제는 이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뒤러에게 무엇보다 문화 충격이었던 점은 독일과 다르게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이른바 ‘예술가’란 존재가 정착하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노동자로 여겨졌던 장인이 아니라 교양이 있고 신사적인 ‘만능인=예술가’란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화가와 조각가를 장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 도시 경제가 발전하자 장인들의 공방 사이의 경쟁이 심해집니다. 그 결과 창의성이 중시됐고 15세기 말에는 다방면의 지식과 여러 기술을 갖춘 ‘예술가’란 개념이 퍼졌습니다.

참고로 계급사회였던 당시 독일에서는 금 세공사가 판화가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고 화가와 판화가는 신분이 더 낮은 계급으로 보았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에서는 예술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뒤러는 ‘교양이 있고 신사적인 예술가’란 의식을 가지고 독일로 귀국했습니다. 고향 뉘른베르크에서 그는 자신의 공방을 열었고 1498년에는 15장의 목판 연작 『요한 묵시록』으로 대성공을 거둬 명성을 떨쳤습니다.

뒤러는 자화상을 몇 장이나 그린 최초의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과 같은 해에 그린 이 자화상에서는 멋쟁이였던 뒤러답게 귀족 자제처럼 꾸민 모습입니다.

자화상에서 장갑을 낀 것도 장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더 높은 신분으로 여겨진 예술가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타공인 미남이었던 그의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와 예술가란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난 작품입니다.

그가 남긴 초상화 중에서도 이례적이며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작품은 1500년 28세 때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오른손도 마치 예수의 축복 자세와 같이 묘사되었고 자기 자신을 예수처럼 그려냈습니다.

이탈리아와 비교해 당시 독일 미술은 이론적인 기초가 없는 장인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 사회의 종교개혁자였던 것처럼 자신은 독일의 미술 개혁자가 되겠다는 뒤러의 결의가 이 자화상에서 선언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자화상들은 주문을 받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당시 독일에서는 화가의 자화상을 바라는 사람

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 그렸고 일부만 감상할 수 있었던 28세의 『자화상』은 뒤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해부터 뉘른베르크 시청사에서 전시됐습니다. 그리고 자화상의 선언대로 독일 화가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개혁자인 뒤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505년에 다시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베네치아에서 제작한 작품은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판화가로서 이미 이탈리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었지만 이 작품으로 색채 사용법을 모른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7년 귀국한 후 북유럽 화가로서 첫 누드 등신상 『아담과 이브』를 그렸습니다. 이탈리아 화가들과는 다르게 고대 조각에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북방 화가들은 나체 묘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모티브로 삼은 것은 물론 나체 작품을 그리기 위한 구실이었습니다. 서양회화에서는 19세기까지도 누드를 그리는 것에 신화나 성서와 같은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뒤러는 이탈리아에서 배운 나체 표현과 더불어 식물 등의 정교한 묘사와 보통 아담을 그릴 때 삼갔던 음모 묘사까지 했습니다. 독일 회화답게 자연주의적 요소를 추가했고 남북 회화의 전통을 융합해 이상적인 인체상을 표현했습니다.

일찍부터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 현공의 후원을 받은 뒤러는 2번째 이탈리아 방문에서 귀국한 후, 합스부르크가의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화가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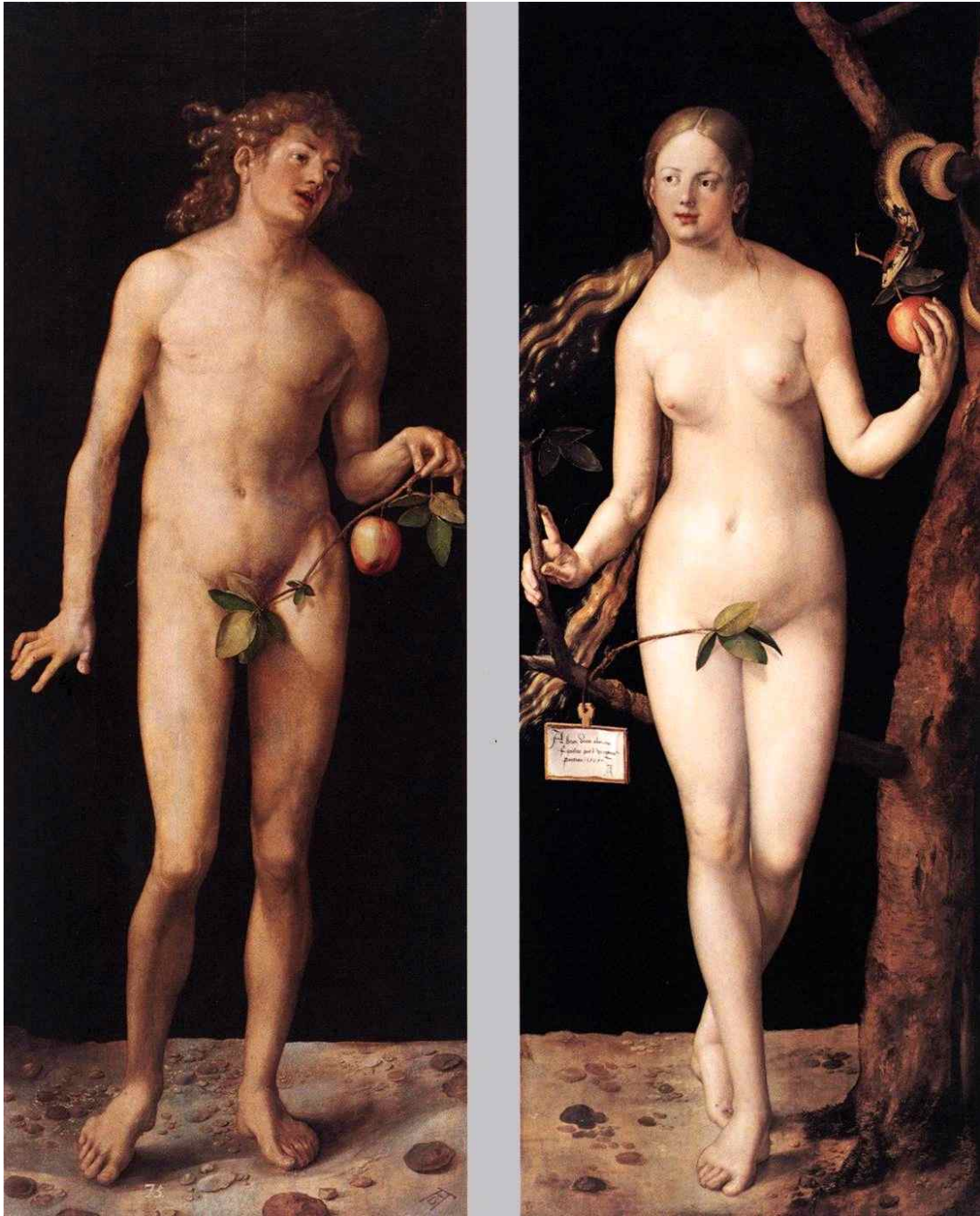
그는 또한 개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다르게 미술교육의 기초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독일의 화가들을 위해 뒤러는 측정론, 성근축론, 인체비례론에 대해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과 사후에 이러한 이론에 관한 저서들은 각각 출판됐습니다.



『자화상』, 1498년,
52 × 41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자화상』, 1500년, 67.1 × 48.9 cm,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아담과 이브』, 1507년, 209 × 81 cm(아담), 209 × 80 cm(이브)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Artist 05. 많은 화가에게 충격을 안겨주어 로마에서 유명해진
『성 마태오 3부작』

- 17세기 서양회화의 혁신을 불러온 바로크 회화의 혁명가인
카라바조(1571-1610)

현재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회화라 하면 카라바조(1571-1610)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라바조는 17세기 이탈리아 회화 중 양대 조류의 하나이며 또 한 가지 조류로는 볼로냐 화파가 있습니다. 볼로냐 화파에는 미술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카라바조만큼 잘 알려진 화가가 없습니다.

회화의 고전이 된 라파엘로의 고전주의를 계승한 볼로냐 화파는 미술관을 가도 카라바조만큼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근대 회화에 대한 현대인의 평가와 인기가 높은 데 비해 고전적 회화에 대한 평가와 인기가 낮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가 17세기 서양회화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바로크 회화의 혁명가로서 유럽 전체로 그 영향력을 퍼트린 것은 사실입니다. 볼로냐 화파와 비교해 훨씬 개성적인 예술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닌 ‘카라바제스키¹⁰⁾’라고 불리는 많은 추종자를 낳았습니다.

17세기 서양회화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바로크 회화의 혁명가로서 그 영향력이 유럽 전체에 미쳤던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입니다. 밀라노에서 카라바조 후작의 석공의 장남으로 태어나, 유년 시절을 그 근교 마을 카라바조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탈리아 화가답게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1592년 이후 로마로 나온 그는 그 지역 화가의 공방에서 수업을 받았고, 무명 화가로서 여자 점쟁이를 모델로 한 풍속화와 소년상 등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일류 미술작품 수집가였던 토스카나 지방의 명문가 출신 프란체스코

10) 역주. 카라바조 양식에 고취된 국제적인 화가의 유파. 어두운 색 배경, 강렬한 명암 대조, 서민적인 도상과 리얼리즘을 특색으로 한다. 1600-1620년경 로마를 기점으로 나폴리, 북이탈리아 등으로 퍼져갔으며 대표적인 화가로는 젠틀레스키, 프레티, 르 바랑탕 등이 있다.

텔 몬테 추기경의 눈에 띄게 되어 추기경의 마다마 궁전(현재 이탈리아 국회 상원 의회)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추기경과 그 지인들을 위해 종교화와 풍속화 성향이 짙은 소년상,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드물었던 독립적인 정물화를 그립니다. 카라바조는 당시 역사화보다 고귀하지 못한 그림으로 취급됐던 풍속화와 정물화란 장르가 이탈리아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로마에서는 명문가 출신의 교황과 추기경들이 예술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유럽 전체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로마는 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텔 몬테 추기경과 같은 이름의 성자를 그린 『범열에 빠진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입은 상처인 성흔이 나타난 장면을 그렸고, 이는 카라바조가 그린 최초의 종교화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명암 표현, 전통적으로 이상적이어야 할 천사와 성자도 사실적(즉 현실적)으로 그려낸 데다 카라바조의 특기인 ‘호모에로틱¹¹⁾’이라 불리는 묘사가 눈에 띕니다.

그러므로 종교화인데도 세속적인 성격이 강하며 카라바조의 독자적인 조형성이 확립된 작품으로 당시에 호평을 받았고 미술사에서도 어디까지나 카라바조의 조류이지만 바로크 회화의 출발점으로 미술사 교과서에 소개된 작품입니다.

그 추기경의 주선으로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안에 위치한 콘타렐리에배당의 제단화와 양쪽 벽화 『성 마태오』 시리즈 총 3점을 그려 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이 시리즈는 카라바조가 처음으로 맡은 대작이며 그의 공식적인 데뷔작입니다.

그중 하나가 당시 사람들이 보면 로마 변두리 술집 같은 장소에 예수와 베드로가 나타나 세리인 레비(마태오)¹²⁾를 불러내는 장면을 그린 『성 마태오의 소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수염 난 남자가 오랫동안 마태오로 여겨

11) 역주. 김성곤(2016)에 따르면 동성애는 예전에는 ‘호모에로틱’ 또는 ‘호모섹슈얼’이라고 표현했으나, 지금은 그런 표현 대신 그냥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2) 역주. 마태오도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다. 기독교에서는 마태 복음을 쓴 저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태생이며 처음에는 로마 제국을 위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로 일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후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

졌으나, 지금은 제일 왼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돈을 세고 있는 남자가 마태오로 추정됩니다.

종교화에 등장하는 성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렸지만 제단화 면서도 세속적인 성격이 강한 풍속화처럼 그렸습니다. 마치 서민과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고 이상적인 모습은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조의 가장 유명한 특징인 극적인 빛과 그림자의 대조에 의한 명암 표현은 당시 많은 화가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 3부작은 로마에서 매우 호평을 받습니다.

이렇게 명성을 떨친 카라바조는 로마 화단의 총아가 됐고 종교화 주문이 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미가 아닌 사실적인 묘사와 당시에는 드문 카라바조 특유의 주제가 있는 풍속화,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조를 이용한 명암법이 직간접적으로 로마에서 유럽 전체로 퍼져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예술 수업을 받고 있던 루벤스(1577-1640)도 그중 하나였고, 그는 성당의 제단화로 적합하지 않다고 거절당했던 『성모의 죽음』을 높이 평가하여 당시 그가 섬기고 있었던 만토바 공작에게 작품 구매를 권했습니다.

참고로 그 후 이 작품은 만토바 공작 가문에서 잉글랜드의 찰스 1세(재위 기간 1625-1649)에게 넘겨졌고 청교도혁명이 일어나 찰스 1세가 처형된 후, 최종적으로 그의 조카인 루이 14세(재위 기간 1643-1715)의 손으로 넘어가 그 결과 현재 루브르 박물관의 자랑스러운 소유 작품이 됐습니다. 안트베르펜으로 돌아간 초기 루벤스 작품에는 카라바조의 특징이었던 명암 표현의 영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가톨릭의 본거지인 위트레흐트에도 로마에 있었던 카라바조의 작품을 접해 양식도 주제도 명백히 그 영향을 받은 작품을 전개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의 카라바조는 여러 번 폭력적인 사건을 일으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허리에 검을 차고 싸움을 걸어 소동을 일으키는 등 기이한 행동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06년 5월에 난투극을 벌여 상대 한 명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되면 사형당하므로 급히 로마에서 도망쳐 사형선고가 난 로마의 법치권이 아닌 스페인 지배하의 영토 나폴리로 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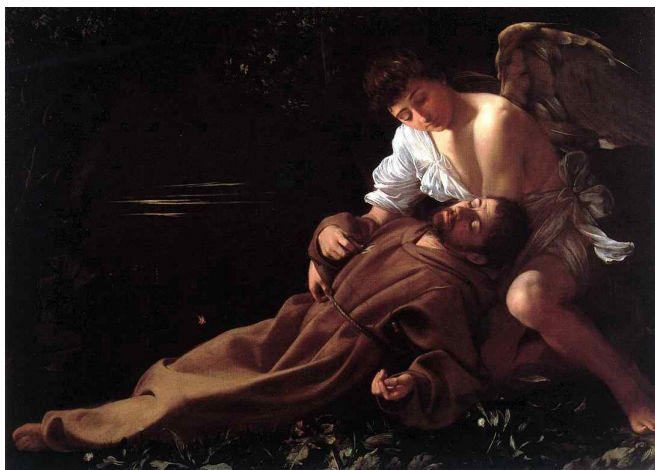
그의 명성이 자자했던 나폴리에서는 즉시 많은 일을 할 기회를 얻었고 그 영

향을 받은 ‘나폴리파¹³⁾’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 몰타섬으로 건너간 카라바조는 성요한 기사단 입단 허가를 받아 기사 작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투옥된 그는 간신히 탈옥하여 시칠리아섬으로 향했고 기사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후 나폴리에 다시 나타나지만 폭한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예전부터 그를 지원했던 이들에 힘입어 교황 바오로 5세(재위 기간 1605-1621)의 사면을 기대한 카라바조는 로마로 향하는 도중 포르토 에르콜레에서 쓰러졌고 1610년 한여름에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탈리아 안팎으로 많은 추종자를 낳았지만 생을 마감한 후 반세기가 지나자 그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는 볼로냐파 화가들이 이탈리아 회화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라바조가 ‘부활’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입니다. 전쟁 때부터 카라바조를 주목했던 이탈리아인 미술사학자 로베르토 룡기(1890-1970)의 주장으로 1951년 고향 밀라노에서 카라바조 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리하여 ‘카라바조 극장’의 막이 화려하게 열리게 됐고, 그 결과 미술계에 다시 한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법열에 빠진 성 프란치스코』, 1595-1596년, 92.3 × 127.5 cm

코네티컷 하트포드 와즈워스 아테니움 미술관

13) 역주. 나폴리를 중심으로 주로 17-18세기에 번창한 화파. 16세기 나폴리는 스페인, 시칠리아의 중계지에 불과했으나 1607년 카라바조가 그곳으로 도피함에 따라 화파 재건의 계기가 되었다. 1630년대 이후 젠틸레스키, 호세 데 리베라 등의 카라바제스키가 배출됐다.



『성 마태오의 소명』, 1599-1600년,
322 × 340 cm, 로마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성모의 죽음』 1605-1606년,
369 × 245 cm, 파리 루브르 미술관

Artist 06.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크 회화를 상징하는 거장은
‘루벤스 공방’에서 대제단화와 역사화를 연달아 제작했다

- ‘왕의 화가이자 화가의 왕’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

미술사에서 ‘플랑드르’라는 명칭은 현재 벨기에 북부 네덜란드어계 플라망어가 공용어인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7세기 저지대 국가에서 네덜란드가 독립한 후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남부 네덜란드를 가리킵니다. 즉 미술사에서 ‘플랑드르’란 현재 벨기에 왕국의 거의 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화가를 꼽자면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 외에 없을 것입니다. 서양미술사에서 루벤스만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보낸 화가는 없습니다. ‘왕의 화가이자 화가의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루벤스는 17세기 플랑드르 회화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크 회화를 상징하는 거장입니다.

또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 중 이례적으로 명문가 출신이며 수준 높은 교양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루벤스가 태어난 곳은 플랑드르가 아닌 부친의 망명지였던 독일 지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안트베르펜¹⁴⁾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으로 법률가였던 아버지 얀은 안트베르펜시의 참사회원¹⁵⁾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이 지배했던 플랑드르에서 박해를 피하려고 가족과 함께 개신교 난민에게 너그러웠던 독일 쾰른으로 망명했습니다.

쾰른에서 얀은 네덜란드 건국의 아버지 오라녜 공 빌럼 1세의 부인인 작센의 안나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는데 머지않아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불륜이 발각됐습니다. 작센의 안나는 빌럼 1세와 이혼했고 얀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시민계급 남성과 귀족계급 여성의 간통은 사형에 처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부인 마리아가 간절히 빈 결과 얀은 석방됐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단 지겐에서 가택연금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겐에서 살던 시절, 3살 연상이자 장차 저명한 고전학

14) 역주. 벨기에 제2의 도시이며 안트베르펜주의 주도이다. 19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였으며 『플랜더스의 개』의 배경이기도 하다.

15) 역주. 參事會員, councilor and alderman. 현대의 시의회 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자가 되는 형 필립과 동생 페테르 파울이 태어났습니다.

1578년 얀은 다시 법률가로 일하는 것을 허가받았고 루벤스는 형 필립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당시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1587년 얀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그의 가족은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누나 블란디나와 필립, 루벤스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부모의 고향인 가톨릭 마을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형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이미 많은 화가가 모국어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어인 라틴어를 배우고 신사의 교양이었던 고전문학(라틴문학)을 배우는 라틴어 학교는 상류계급의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또 당시 플랑드르 지방은 이탈리아와 다르게 예술가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육체노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래라면 장인의 아들, 집안 대대로 화가인 집의 아들이 화가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자제가 화가가 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로크 시대에 루벤스 이외에도 관료 귀족 집안의 자제였던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1594-1665)과 비교적 유복한 제분업자 집안에서 태어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1606-1669) 등 라틴어 학교에 다닌 화가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들의 직업 선택에 낙담하였고 그리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루벤스의 어머니 마리아도 장차 화가가 되도록 아들을 라틴어 학교에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라틴어 학교에서의 교육은 나중에 루벤스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평생 고전문학을 라틴어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시대의 거장들은 압도적으로 역사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많았기에 고전문학은 그들의 작품 주제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화가는 완전하지 않은 번역본이나 화가들을 위해 간결히 편집된 핸드북을 썼습니다. 루벤스의 특기였던 우의화¹⁶⁾와 역사화는 고전문학에 관한 지식

16) 역주. 寓意畵. 우의는 알레고리라고도 한다.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비유법. 주로 도덕적, 교훈적, 풍자적 내용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을 이용하였고 루벤스만의 작품상 숭고한 세계관은 어릴 적부터 받은 고등교육 없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루벤스의 종교화도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본인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 관한 지식이 없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루벤스의 작품은 친숙하게 느끼기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동시대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단화는 기독교도에게는 ‘눈으로 읽는 성서, 성자전’이었으며 궁전을 장식한 그의 역사화는 당시 그런 작품을 볼 기회가 있는 신분인 자라면 누구나 그려진 우의(寓意)나 신화 에피소드를 ‘읽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결혼식 지참금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형과 루벤스는 라틴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16세였던 형 필립은 추밀원 장관의 비서가 됐고 장관의 두 아들의 가정교사가 됐습니다. 그 후 아들 두 명과 루뱅대학을 다녔고, 그곳에서 저명한 라틴어 학자이자 철학자 유스투스 립시우스의 제자가 되어 고전학자가 됐습니다.

한편 13세였던 루벤스는 백작의 미망인 밑에서 시중을 들었고 신사에 걸맞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가를 목표로 한 결과, 그 지역의 화가 밑에서 수업을 받았고 1598년에는 안트베르펜의 화가조합 입회를 승인받았습니다.

1600년부터는 8년간 이탈리아에 체재하며 만토바 공작 빈첸초 1세 곤차가¹⁷⁾(재위 기간 1582-1612)의 궁정화가로 지냈습니다. 1602년에는 만토바 공작으로부터 스페인의 펠리페 3세(재위 기간 1598-1621)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하는 사절로 파견돼 스페인 궁정이 자랑하는 티치아노(1490경-1576)의 작품을 모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체재하는 동안 고대 조각과 르네상스부터 최신 바로크 예술까지 흡수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영향을 자신의 예술에 살렸고 북유럽 최대의 화가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자랑인 고대 조각을 모사하는 것은 북유럽 화가들에게 중요한 수업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완벽하지 않은 신체를 가진 인간보다 이상적

17) 역주. 1562-1612. 몬페라토와 만토바의 공작. 굴리에모 10세 곤차가와 오스트리아 여대공 엘레오노레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예술과 과학의 큰 후원자 중 한 명이었고,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있는 도시인 만토바를 활기찬 문화의 중심지로 바꿨다.

인 신체를 표현한 고대 조각을 모델로 한 나체 표현이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벤스가 1608년 10월 말에 귀국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죽음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아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합스부르크가의 네덜란드 총독 알브레히트 대공 부부가 루벤스를 궁정화가로 맞이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루벤스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브뤼셀이 아니라 안트베르펜에 사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궁정화가로서 화가조합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제자를 무제한으로 받는 것이 가능했고, 그 결과 명성 높은 ‘루벤스 공방’이 탄생했습니다.

그 후 이렇게 큰 공방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등 큰 제단화와 역사화가 제작됐고, 안트베르펜으로 돌아온 후 루벤스는 10년간 60점이 넘는 제단화 주문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내란 상태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종교 미술이 성장 파괴 운동으로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또 작품은 모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로 수출됐습니다. 루벤스가 수많은 제단화와 궁전을 장식하는 연작, 천장화 등을 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탈리아 기행 후 안트베르펜에 큰 공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1618년 완성된 공방 겸 주거공간은 루벤스가 직접 설계했으며, 현재도 복원되어 ‘루벤스의 집’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관광명소입니다. 루벤스 공방에는 수많은 입문 희망자가 쇠도했고 제자 몇 명끼리 분업하는 체제를 통해 유럽 전체에서 오는 주문에 대응했습니다.

현재 버킹엄궁전에 걸려 있는 이 자화상은 원래 영국 왕태자 시절의 찰스 1세를 위해 그려진 작품입니다. 왕태자 시절 찰스는 왕비를 찾으러 간 스페인 궁정에서 멋진 왕실 컬렉션을 보고 미술품에 눈을 떴습니다. 이후 청교도혁명으로 인해 처형당할 때까지 미술품 수집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북유럽 최고의 화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외교활동을 개시했을 무렵이었던 1621년, 영국 귀족인 덴버스 경이 루벤스에게 주문했고 현재는 없어진 공방작 『사자 사냥』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은 사실 왕태자를 위한 것이었고, 덴버스 경은 루벤스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았다며 반품했습니다.

루벤스는 현대로 가정한다면 ‘주식회사 루벤스’의 사장입니다. 공방작을 보낸 실수를 알아챈 루벤스가 주제넘은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왕태자에게 선물한 것이 이 자화상입니다. 즉 미래의 영국 국왕에게 사장으로서 보낸 선물이

‘사죄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프랑스 왕태후 마리 드 메디시스가 주문한 24장 연작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서도 알브레히트 대공 사망 후 이사벨라 대공비의 조언자 겸 외교관으로서 유럽 각지에 있는 궁정을 활발히 돌아다녔습니다. 외교사절의 신분으로 스페인과 영국을 방문하고,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와 영국 왕 찰스 1세를 교양과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어학 능력, 그리고 우아한 언행과 화술로 매료시켜 그들로부터 귀족과 기사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는 등 당시 화가로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루벤스는 후대 화가들에게서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모범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조형적인 면에서도 데생보다 색채를 중시한 ‘색채파’의 대표로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미술과 19세기 낭만주의의 대표자 외젠 들라크루아(1798-1863) 등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생활로는 안트베르펜으로 귀국한 후인 1609년에 그 지역 명문가 출신인 이사벨라 브란트와 결혼했는데, 1626년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외교활동에 전념하지만 53세가 된 1630년 안트베르펜의 유복한 상인의 16세 딸인 엘렌 푸르망과 재혼했습니다. 이후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엘렌에게 폭 빠지게 된 루벤스는 그녀를 뮤즈로 삼아 작품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명 사이에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1635년에는 스테인에 있는 대저택과 사유지를 구입해 ‘스테인의 영주’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37페이지의 말기 자화상은 그야말로 루벤스의 생애를 집대성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의상, 장갑, 검, 모자를 착용한 모습은 화가로서가 아닌 귀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바로크 시대의 유럽을 돌아다녔던 루벤스는 1640년 5월 30일에 그 영광스러웠던 삶을 마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1611-1614년,
 세로 421 × 311 cm(중앙패널) 421 × 153 cm(좌우 패널), 안트베르펜 대성당



『자화상』, 1623년,
 85.7 × 62.2 cm,
 영국 로얄 컬렉션



『자화상』, 1639년경,
109.5 × 85 cm,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Artist 07. 예술가의 불모지 영국에서 확립된 은근한 우아함을
풍기는 ‘영국풍’ 초상화

- 루벤스가 ‘가장 훌륭한 조수’라고 칭한 안토니 반 다이크
(1599-1641)

17세기 북유럽 최고의 화가는 『플랜더스의 개』의 넬로도 동경했던 루벤스입니다. 그 루벤스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조수라고 칭한 인물이 안토니 반 다이크(1599-1641)입니다.

안톤 반 다이크는 안트베르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10세부터 그 지역의 화가 밑에서 제자로서 수업을 받았고, 만 18세 때 마스터 자격을 얻어 성 루카 조합(예술가 길드)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같은 고향 출신의 거장 루벤스의 공방으로 옮겨 루벤스에게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조수로 불렸고 머지않아 그의 스승 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국 국왕 찰스 1세¹⁸⁾의 궁정화가로 활약했고, 1641년 런던에서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국적을 부여받았고 미술사에서는 안톤의 영어식 이름인 ‘안토니’ 반 다이크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현대인에게 예술가는 혼자 제작에 몰두하는 고고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드 마스터스(1700년대까지의 유럽 거장들)는 조수와 제자를 두고 공방제작을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성을 떨친 루벤스 공방에는 많은 입문 희망자가 모여들었고 루벤스의 유채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자와 조수들이 제작한 후 마지막에 루벤스가 직접 완성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공방제작 방법에는 최종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방을 대표하는 화가가 실제로 그리는지 아닌지는 제작을 의뢰한 자가 왕족인지 아닌지 등 사회적 지위나 대표 화가와 친분에 따라서 좌우됐을 것입니다. 프랑스 왕태후 마리 드 메디시스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마리 드 메디시스의 생애(총 24점)』 연작

18) 역주. 1600-1649. 1625년 제임스 1세 사후 스튜어트 왕가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했다. 신앙심이 깊었으나 의회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국가 분열의 내전 상황을 초래했다. 그는 예술에 조예가 깊었고 특히 미술품에 대한 애호가 남달랐고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수집하거나 따로 작품을 의뢰하기도 했다.

의 경우, 계약서에는 루벤스가 모든 얼굴을 직접 그리기로 되어있었지만, 총 24점의 퀄리티를 보면 루벤스가 그린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수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연작이니 당연했을 것입니다.

물론 화가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공방작품’도 있었습니다. 반 다이크도 후에 자신이 만든 런던 공방에서 이 공방제작의 방식을 이어갔습니다.

1620년 루벤스 공방을 졸업한 반 다이크는 퍼백 자작에게 초빙되어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에게 고용됐지만 1621년 당시 북방 화가답게 이탈리아에 6년간 체재하고 예술 수업을 받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1627년에 귀국해 안트베르펜에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은사 루벤스의 존재는 반 다이크에게 같은 고향의 화가로서 무척이나 거대했습니다. 결국 그가 찾아낸 방책은 예술가 불모지였던 영국이었습니다.

1632년에 런던으로 건너갔고 미술애호가였던 찰스 1세의 상임 주석 화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 제작 의뢰가 쇄도한 런던의 반 다이크 공방에서 왕실 사람들과 영국 귀족들의 모습을 그린 여러 초상화가 제작됐습니다. 반 다이크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공방 조수가 제작하는 방식은 그의 스승 루벤스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화려한 데다 우아한 복장을 선호했던 반 다이크는 세련된 태도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루벤스처럼 왕후 귀족에게서도 사랑받았고 반 다이크 자신도 귀족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1세부터는 루벤스처럼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화가로서 기사의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화가 신분이 낮았으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반 다이크는 몇 장이나 자화상을 그렸는데 41페이지에 실린 자화상은 궁정화가가가 되고 난 후 그린 것으로 찰스 1세로부터 받은 금 체인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 태양신 아폴로의 총애를 받았지만 버림받은 클리티아가 쇠약해져 해바라기로 모습을 바꾼 후에도 항상 태양 쪽으로 얼굴을 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해바라기는 찰스 1세의 상징이며 후원자였던 찰스 1세에 대한 반 다이크의 충성과 헌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유럽에서도 이전까지의 장인 같았던 화가가 아니라 이탈리아처럼 신사이자 교양인인 예술가상이 확립됐습니다.

반 다이크의 특기이며 그 후 영국 초상화 양식을 확립시킨 것은 『찰스 1세의 초상』 처럼 야외에서 편안한 포즈를 취하면서도 고귀하며 우아한 분위기가 감도는 초상화였습니다. 이는 모델의 용모를 우아하고 기품있게 미화시키면서도 ‘절제된 우아함’을 선호했던 영국 왕후 귀족의 허영심을 자연스러운 연출로 만족시킬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런던에 왕립미술원(로열 아카데미 오브 아트)¹⁹⁾이 창립된 시기는 프랑스 왕립미술조각아카데미보다 120년 늦은 176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 다이크가 확립한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풍기는 초상화 스타일은 아카데미 회원이었던 영국인 화가들에게도 계승됐습니다. 야외에서 자세를 취하는 초상화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영국풍’으로 ‘영국 팬’이 많은 프랑스 상류계급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40페이지의 『찰스 1세의 초상』은 후에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뒤 바리 부인이 국왕에게 하사받은 루브시엔 성에 장식하고자 소유하고 있었으나 루이 16세가 국왕으로 즉위한 후인 1775년에 구매했습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 혁명 후에 왕가의 미술 컬렉션이 국유화됐고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 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연일까요. 찰스 1세는 청교도혁명 때, 그리고 루이 16세와 뒤 바리 부인은 프랑스 혁명 때, 세 명 모두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19) 역주. Royal Academy of Arts, RA. 런던 피카딜리에 있는 미술학교이자 학회이다. 1769년에 개교했다. 박물관이 병설되어 있고, 현재는 3년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찰스 1세의 초상』, 1635년경,
266 × 207 cm
파리 루브르 미술관



『해바라기와 함께 있는 자화상』, 1633년 이후,
53.4 × 73 cm, 개인 소장(웨스트민스터 공작)

Artist 08. 그림을 ‘읽는’ 시대에 프랑스 회화의 규범이 되는
이지적 양식은 푸생이 완성했다

- 17세기 후반 이후 프랑스 회화의 예술 이론을 만들어낸
니콜라 푸생(1594-1665)

현대 일본에서는 회화를 감상할 때 ‘감성’이란 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회화는 경시됐고 이성과 지성
을 자극하는 회화를 좋게 평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했고, 이러한 전통적인 프랑스의 미의식을
이해하는 데에 니콜라 푸생(1594-1665)의 회화 예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푸생의 예술 이론을 바탕으로 17세기 후반 이후의 프랑스 회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하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회
화 갤러리의 소장품 중 푸생은 압도적인 작품 수를 자랑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탈리아 회화 갤러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프랑스 회화 갤러리는 한산합니
다. 프랑스의 미술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1594년 노르망디 지방의 농장주 집에서 태어난 푸생은 아버지가 관료 귀족 집
안이었기 때문에 라틴어 교육을 받았고 인문학적 교양을 쌓아 ‘화가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파리로 가 수업을 받지만 당시 루브르 미술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1624년에 염원했던 예술의 도시 로마로 갔습니다.

어느 시대든 서양 동양 관계없이 인간관계는 중요했습니다. 파리에 있던 시절
에는 왕가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시인 마리노가 푸생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마리노의 소개로 교황 우르바노 8세(재위 기간 1623-1644)의
조카 바르베리니 추기경의 후원을 받았고 고대 그리스 로마 연구자 달 포초와
알게 되어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라틴어 교육 덕분에 역사와 고전문학(신화)에 정통했던 푸생

에게 고대 미술의 보고이며 동경했던 1세기 전의 거장 라파엘로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로마는 큰 영감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회화의 고전(규범)이 된 푸생의 독자적인 양식이 서서히 확립해갑니다. 당시 로마 미술계에서는 극적이고 격한 바로크 양식이 주류였는데, 균형 잡힌 질서를 바탕으로 한 구도와 정밀한 테생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 고전주의 회화’라고 불리는 이지적인 양식을 완성합니다.

푸생은 ‘주제는 고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색채로 단순히 대중을 매료시키는 것을 저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는 색채가 아니라 지성을 자극하는 ‘형식과 구성’을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화는 성서와 신화, 우의가 주제인 역사화 지상주의가 자리잡고 있었고 회화는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1648년 파리에 왕립회화조각아카데미²⁰⁾가 창립됩니다. 장인이 아닌 예술가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인 아카데미에는 이론과 실전에 따라 예술가를 육성하는 부속 미술학교가 있었고, 그 교육 커리큘럼 지침이 된 것이 푸생의 예술 이론이었습니다.

왜 로마에서 생애를 마친 푸생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지녔는가 하면 루이 14세의 수석 화가였던 샤를 르브룅(1619-1690)이 로마에서는 푸생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술 이론을 이어받아 아카데미의 회장이 되었을 때 푸생의 예술 이론을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이리하여 프랑스 고전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아르카디아의 목자들』은 푸생답게 보는 이의 이성을 자극하는 프랑스 고전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아란 고대부터 이상향의 대명사이며 신화 문학에서는 신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황금시대의 이상향이자 낙원을 가리킵니다. 석판에는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이 낙원에도 언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죽음이 찾아옴을 시사합니다.

즉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기독교 신자의 정신 수양인 죽음 명상

20) 역주. Acadé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 궁정 화가들과 미술애호가들이 루이 14세 섭정 정부에 청원하여 설립됐다. 1803년 명칭이 ‘미술아카데미(Académie des Beaux-Arts)’로 바뀌었다.

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는 자화상을 별로 그리지 않았던 니콜라 푸생이 자신이 거주하던 로마에서 친구이며 고객인 폴 프레아르 드 샹틀루를 위해 그려 파리로 보낸 작품입니다. 푸생이 56세 때 그렸습니다.

푸생은 30세에 로마로 향한 후, 1640년 말에 루이 13세(재위 기간 1610-1643)의 초빙으로 귀국해 파리에서 국왕 수석 화가가 되었습니다. 파리 초빙에 참여한 인물이 샹틀루이며 파리에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궁살이’가 적성에 맞지 않는 데다 성가신 인간관계에 지친 푸생이 로마로 돌아간 후에도 끈끈한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자화상은 액자와 그림을 배경으로 한 화가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손에 책을 든 학자와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푸생다운 모습을 보고 샹틀루도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샹틀루를 위해 제작된 것이 프랑스에 일시귀국하기 1년 전에 완성한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를 주제로 했고, 예언자이며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황야에서 심한 기아에 시달릴 때 중앙에 그려진 모세가 하늘을 가리키자 하나님이 은혜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어 사람들에게 주는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인간의 고상하고 엄숙한 행위를 주제 안에 담은 푸생다운 작품입니다. 오른쪽 앞에 있는 여성은 자신도 기아 상태지만 바구니 안에 만나를 넣어 가져온 청년을 향해 왼손으로 누워있는 노인을 가리키며 자신보다 먼저 주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왼편에는 기아가 너무나 심각한 나머지, 모유를 어머니에게 주고 있는 딸을 그려 자애를 상징합니다. 푸생은 하나님의 자애뿐만 아니라 딸의 자애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묘사된 인물의 표정과 자세를 통해 주제 자체의 에피소드뿐 아니라 인간의 이념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카데미의 회장이 된 르브룅도 푸생이 죽은 후 아카데미에서 이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푸생의 대표작이며 푸생 자신도 걸작이라고 인정한 작품이 『솔로몬의 심판』입니다. 자화상 이외에 역사화밖에 그리지 않은 푸생답게 이 작품도 구약

성서가 주제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매춘부 두 명이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실수로 가슴으로 아기를 짓눌러 죽게 한 여인이 다른 아기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빼앗아 버립니다. 솔로몬은 소송을 건 두 여인 앞에 옥좌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검을 가지고 오게 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도록 지시합니다. 그러자 왼쪽에 있는 여인이 아이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소송을 취소했고 솔로몬은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로 이 구약성서 주제는 신약성서의 ‘최후의 심판’의 예형²¹⁾으로 간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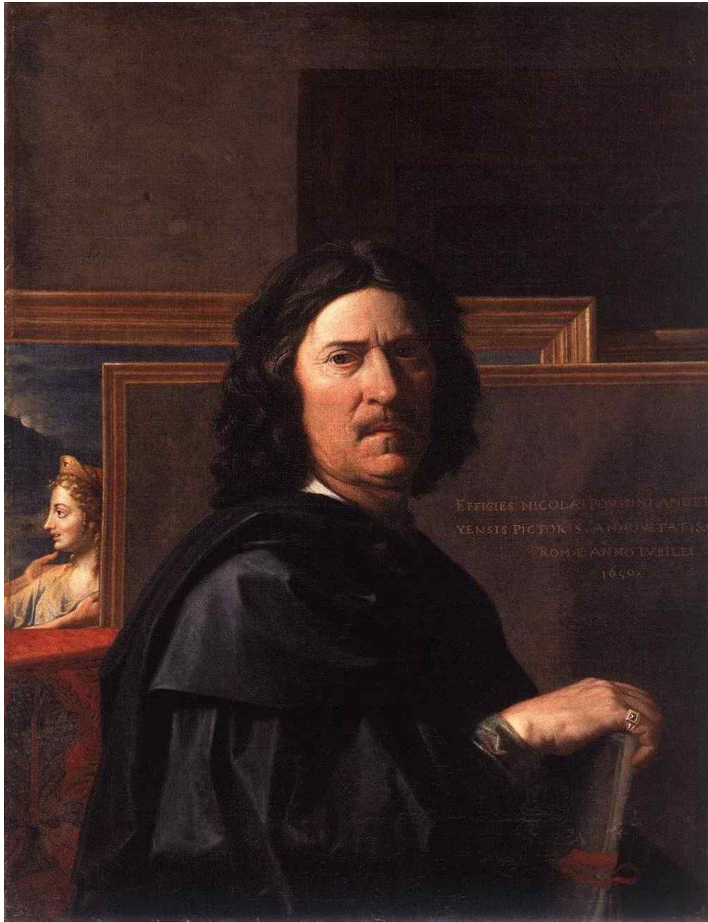
감각보다 지성을 자극하기 위해 색채보다 형식과 구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푸생의 지침이 나타난 푸생의 대표작이며 프랑스 고전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카디아의 목자들』, 1638-1639년,

85 × 121 cm, 파리 루브르미술관

21) 역주. 豫型. 예표(豫表). 예형론은 성서에 주석을 다는 해석법 중의 하나다. 성서 해석에 관한 이론 체계 중 하나로, 신약성서의 내용을 구약성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자화상』, 1650년,
98 × 74 cm,
파리 루브르미술관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 1637-1639년,
149 × 200 cm, 파리 루브르미술관



『솔로몬의 심판』, 1649년,
101 × 150 cm, 파리 루브르미술관

참고문헌

- 김성곤 (2016),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론 LGBTQ,’ ‘몸 담론 Body Discourse,’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문학사상』 2016-8월호, 문학사상사, pp.42-52.
- 김혜연 (2005), 「한·일어(韓日語)의 ‘완료상(完了相)’에 관한 대조연구 - 모어간섭(母語干涉)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4집,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p.131-149.
- 월간미술 편집부 편 (2018),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정영목 (1997), 「한국 현대 역사화: 그 성격과 위상(位相)」, 『造形 FORM』 Vol.20,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pp.58-78.
-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2021.05.18. 9:00 접속).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List.do?mn_id=216
- 네이버 국어사전, (2021.07.01. 9:00 접속).
<https://ko.dict.naver.com/#/main>
- 서양화가 최연욱 (2017.06.30), 「바로크 미술의 천재 악동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Caravaggio」, (2021.03.20. 15:40 접속).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uctom&logNo=221040727955&proxyReferer=https:%2F%2F>
- Grove Art Online, (2021.03.10. 21:30 접속).
<https://www.oxfordartonline.com/groveart>
- Jan Rubens, (2021.04.08. 15:30 접속).
https://de.zxc.wiki/wiki/Jan_Rubens

日本語抄録

本論文は、一時代を代表する名画を描いた有名画家を紹介した『時代を語る名画たち- 絵画を変えた22人の天才-』のArtist01~08を翻訳したものである。この本は画家の一生だけでなく、画家の表現様式や画家の間の関係性、歴史についても記述している。

Artist01の画家は、ヤン・ファン・エイク。15世紀フランドル派を代表する画家で、油彩技法を初めて使ったことでも知られている。『ゲントの祭壇画』を描いた人物としても有名だ。

Artist02の画家は、レオナルド・ダ・ヴィンチ。盛期ルネサンスの三大巨匠のうち最年長で、パリのルーブル美術館の所蔵品の中で最も人気がある『モナ・リザ』を描いた画家だ。

Artist03の画家は、ラファエロ。盛期ルネサンスの三大巨匠の一人で、西洋絵画の古典と呼ばれている。

Artist04は、ドイツ美術史で最も偉大な画家デューラー。当時は存在しなかった「芸術家」としての画家という概念をドイツに導入した人物だ。

Artist05は、バロック美術を代表する画家カラヴァッジョ。優れた才能を持ち、多くの追従者を生んだが、劇的な人生を生きた異端児でもある。

Artist06は「王の画家にして画家の王」と称えられるルーベンス。画家としては異例の名家出身のエリートで、流暢な外国語で外交官としても活躍し、王から騎士の称号を与えられるなど、栄光に満ちた人生を生きた人物だ。

Artist07の画家は、ルーベンスから「最良の助手」と称えられたアンソニー・ヴァン・ダイク。芸術家不毛の地であったイングランドの画壇に影響を及ぼした画家であり、特技は肖像画であった。

Artist08の画家は、フランス絵画の規範となったブッサン。感覚より知性に訴える理知的な様式を完成した。